

중국 산둥성의 FTA 활용현황에 관한 실증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FTA of Shandong Province in China

션즈핑(Zhi-Feng Shen)^a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대학원

김태인(Tae-In Kim)^b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부교수

목차

Abstract

- I. 서론
 - II. FTA 활용현황 및 선행연구
 - III.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 IV. 실증분석
 - V. 결론
- References

Abstract

According to the survey on the state of practical usage and present situation of FTAs, conducted among trade companies operating in Shandong province in 2014, more than 90% of companies are believed to be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Therefore this study tries to test what impact the awareness and utilization of an FTA have on its outcome among trade companies operating in Shandong province as well as partner countries and other trade companie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e foun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1) a company's global orientation (as measured in export density as a percentage of profit) and 2) its competitiveness (as measured in annual sales), and a company's degree of utilization of FTA provisions.

Second, One of the findings is that the more aware of the (exporting) HS code, conventional tariffs and the process of issuing C/O the companies from Shandong province are the more they actually use (utilize) an FTA inpractice. Another interesting finding is that the more aware of the (exporting) HS code and conventional tariffs the enterprises are the higher is their practical usage level of an FTA.

• Received 8 June 2015, Revised 20 June 2015, Accepted 25 June 2015.

^a First Author, E-mail: shenzhifeng123@126.com

^b Corresponding Author, E-mail: tikim@kangwon.ac.kr

© 2015 The Institute of Management Research (IMR) / The Institute for Industrial Research (IIR). All rights reserved.

Third, however, at the time of this study's completion, FTA utilization was not yet positively correlated with statistically significant performance results.

Therefore, to increase the utilization and performance of FTA, the China government have to make a efficient business models for each industry and support the small and mid-size businesses including Shandong province's SMEs.

Keywords: FTA Awareness, FTA Utilization, FTA Performance, Shandong Province

I. 서론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작된 FTA (Free Trade Agreements)의 증가는 지난 1990년도부터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 내 무역량이 많은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다양한 수준과 형태의 FTA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급속한 FTA의 증가에는 중국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중국은 현재 변화하는 세계경제에 맞추어 예전 중국 정치의 중요한 기치인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적인 경제적 실리 위주의 대외개방정책을 펼치고 있다.

세계 30대 경제대국중 하나인 2001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함과 동시에 주변국들과 FTA 추진에 힘쓰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은 주변 아시아지역외의 다른 지역의 국가들과도 FTA를 맺기 위한 정착을 추진 중이며 이미 34개 국가와 FTA를 맺게 되었으면서 좋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한편 중국 산동성은 중국 대외무역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09~10년 기간 중 무역규모는 전체적으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입 총액은 2013년 전국 제5위를 달성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FTA활용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 산동성을 대상으로 FTA 활용현황을 실증 연구할 필요성이 커졌다. 또한 FTA 인지도 및

FTA 활용도가 FTA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현재 중국의 FTA 정책은 실질적인 수출이나 제고를 위한 대책보다는 FTA의 양적인 증대에 치중하고 있다. 따라서 FTA의 경제적 효과가 당초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FTA를 이용해서 수출성과 제고에 활용하기 힘든 상황 때문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들의 역량 부족 때문이다(심재권 2013). 이에 따라 최근 정부는 FTA 활용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산업부, 2014; 이준건, 2013; 관세청 FTA 컨설팅, 무역협회 FTA 활용지원센터, 중소기업 FTA 활용 가이드북). FTA활용역량 (Capabilities of Utilizing FTAs)과 수출성과 간 관계에 관한 윤영호 및 나도성(2013)의 연구 결과는, FTA 환경에서 FTA 활용역량이 수출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들의 FTA 인지도와 활용도가 높아질 경우,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당연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는 지역과 산업기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선행연구와 비교해 볼 때 본 연구는 산동성이라는 중국 특정 지역의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하고자 하

였으며, 또한 중국산동성에 위치하고 있는 수출입기업들이 FTA 인지도 및 FTA 활용도가 FTA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중국 정책당국에게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동성의 수출입 기업들을 대상으로 FTA 인지도 및 FTA 활용도가 FTA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 이를 토대로 산동성 지역에서 FTA 인지도 및 활용도가 FTA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문헌연구와 실증분석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II. FTA 활용현황 및 선행연구

1. 중국 산동성 FTA 활용 현황 및 성과

중국 산동성 기업의 FTA 활용현황 및 FTA 활용지원제도 이용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2014년 10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2014년 현재 중국 산동성에 위치한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FTA 발효국을 대상으로 수출입을 하고 있는 300여개 업체를 업종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정하였으며 조사방법은 팩스, 전자메일을 활용하였다. 수거

Table 1. Shandong Companies Survey Response

	Classification	Frequency Count(Number)	Ratio(%)
Type of Business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Food	21	18.4%
	Cement	5	4.3%
	Chemistry/Cosmetics	12	10.5%
	Plastic/ Rubber	8	7.0%
	Fabrics/Clothing	18	15.8%
	Ore	4	3.5%
	Steel Industry	6	5.3%
	Mechanical/ Electrical and Electronics	11	9.6%
	Automobile and components	13	11.4%
	Medical Devices	9	7.9%
	Others	7	6.1%
Export Ration	0~20%	48	42.1%
	21~40%	16	14%
	41~60%	20	17.5%
	61~80%	20	17.5%
	81~100%	10	8.9%
Sum of Annual Loan	Under 100,000 USD	8	7.0%
	100,000~1 million USD	34	29.8%
	1 million~10 million USD	54	47.4%
	10 million USD~50 million USD	12	10.5%
	Over 50 million USD	6	5.3%
Number of Employees	Under 10	12	10.5%
	10~50	68	59.6%
	50~100	18	15.8%
	100~500	16	14.1%
	Sum	114	100%

된 설문지 중에서 최종 114개 표본을 중심으로 자료 정리 및 통계처리를 수행하였다. 설문 응답기업의 업종, 수출비중, 연매출액, 종업원 수 등에 대한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응답기업의 업종은 농림수산물, 섬유/의류, 자동차 부품, 화학/화장품, 기계/전기전자, 의료기기, 플라스틱/고무, 기타, 철강공업, 시멘트, 광석 등의 순서로 분포하고 있었다. 종업원 수는 '100명 이하'가 전체 85.9%에 달하고, 응답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임을 알 수 있었다. 응답기업의 연매출액은 '백만 달러에서 천만 달러 사이'가 전체 47.4%, 수

출비중은 '20%이하'가 전체 42.1%로 각각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중국 산동성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FTA 활용현황 및 FTA 활용지원제도 이용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 전체 응답기업의 약 90% 이상이 중소기업이었고, 2) 주요 수출입 지역(FTA 발효국)은 ASEAN, 싱가포르와 대만으로 나타났으며, 3) FTA 인지도는 섬유/의류, 기계과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 4) FTA 활용도는 자동차 부품과 철강공업 산업에서, 5) FTA 성과는 광석, 철강공업과 기계 산업에서 높게 나타났다.

Table 2. China FTA Propulsion Situation

Classification	Country/ Agreement name	Propulsion progress	Note
Taken effect	Hong Kong, Macau CEPA	2004.1. Taken effect	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ASEAN FTA	2004.1.EHP Taken effect. 2005.7. Commodity agreement taken effect 2007.7. Service agreement taken effect 2009.8. Investment agreement taken effect	(ASEAN: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Singapore, Malaysia, Philippines, Brunei, Indonesia, Thailand, Cambodia, Laos, Vietnam Myanmar (EHP; Early Harvest Programme) Part of the Agricultural products(1.5 percent of the turnover) Early elimination tariff.
	Chile FTA	2006.10. Commodity agreement taken effect 2010.8. Service agreement taken effect 2010.2. The 6th investment negotiation held.	
	Pakistan FTA	2006.1.EHP Taken effect 2007.7. Commodity agreement taken effect 2009.10. Service agreement taken effect	(EHP; Early Harvest Programme) in action
	New Zealand FTA	2008.4 FTA Agreement explanation 2008.10 FTA Taken effect	The first FTA with advanced economy country
	Singapore FTA	2008.10 FTA Agreement explanation 2009.3 FTA Taken effect	
	Peru FTA	2009.4 FTA Agreement explanation 2010.3 FTA Taken effect	
	Costa Rica FTA	2010.4 FTA Agreement Explanation 2011.8 FTA Taken effect	

Classification	Country/ Agreement name	Propulsion progress	Note
Taken effect	Taiwan ECFA	2010.6. ECFA official Signing 2010.9. ECFA Taken effect 2011.1. EHP Taken effect	ECFA :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EHP: Early Harvest Programme) Early abolition of 806 items The expansion agreement after program taken effect.
	Iceland FTA	2014.7 FTA Taken effect	
	Switzerland FTA	2014.7 FTA Taken effect	
In Negotiation	GCC(Gulf Cooperation Council) FTA	2005.4 Negotiation Begin 2009.6 Official Negotiation	Saudi Arabia, Kuwait, UAE, Qatar, Oman, Bahrain
	Australia FTA	2005.5 Negotiation begin 2007.10 The 10th Negotiation 2014.9 The 21st Negotiation	
	Norway FTA	2008.9 Negotiation Begin 2009.3 The 3rd Negotiation 2010.9 The 8th Negotiation	
	Korea FTA	2007.3 Mutual research begin 2010.6 Mutual research finish 2012.5 Negotiation begin 2014.11 The 14th Negotiation	
	Korea, China, Japan FTA	2010.8 The 1st mutual research 2011.12 The last mutual research 2013.3 The first Negotiation 2014.9 The 5th Negotiation	
push examination	India RTA	2003 Mutual research begin 2007.10 Mutual research finish 2010.1 Economic trade investment cooperation begin	RTA: Regional Trade Arrangement

Material: China FTA Portal

〈Table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산둥성 무역규모는 전체적으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9~10년 기간 중 산둥성의 수출입 총액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에는 2,000억 달러를 넘어 크게 증가했다. 수출입총액은 2013년에는 3,150억 달러로 전국비중은 7.6%로 전국 순위는 제5위이다. 수출총액은 1,420억 달러(전국비중 6.4%)로

Table 3. Shandong Trade Trend (2009~2013)

Unit : \$ billion, %

Year	2009	2010	2011	2012	2013	2013		
	Shandong Province					China	Specific gravity	Ranking
total trade	1628	2246	2841	2957	3150	41523	706	5
Total volume of exports	827	1103	1346	1360	1420	22108	6.4	5
Total volume of imports	801	1143	1495	1597	1730	19415	8.9	3

Data: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China Trade Statistics

전국 순위는 역시 제5위이다. 수입총액은 1,730억 달러(전국비중 8.9%)로 전국 순위는 3위이다. 수입총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수출총액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아래 <Table 4>에서 중국 산둥성의 주요 수출대상국을 보면 2013년 기준으로 미국, 일본, 한국의 순이다. 이수입 대상국을 보면 가장 큰 수입상대국은 한국이다.

2. FTA 선행연구

선행연구를 크게 FTA 활용 차원과 중소기업 활용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FTA 활용 차원의 연구는 행정절차의 복잡성, 활용상의 문제점 및 제약요인, 활용의 장애요소,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장애요인, 활용지원제도,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등 FTA 활용의 문제와 개선을 제시한

Table 4. Shandong Province's Trade Partners

Unit : \$ billion, %

Country	Export					
	2012			2013		
	Value	Rate of increase	Specific gravity	Value	Rate of increase	Specific gravity
Total volume	1360	1.1	-	1420	4.4	-
U.S.A	208	0.7	15.3	215	3.3	15.1
Japan	175	3.0	12.9	165	-6.0	11.6
South Korea	139	-8.5	10.2	135	-2.8	9.5
Hongkong	52	47.4	3.8	57	10.8	4
U.K.	33	2.3	2.4	38	15	2.7
Russia	36	6.0	2.6	38	5.1	2.7
Germany	40	-15.5	2.9	36	-8.9	2.53
India	43	-13.5	3.2	35	-16.8	2.46
Australia	28	14.4	2.1	32	13.5	2.25
Indonesia	26	10.5	1.9	31	16.8	2.18
Country	Import					
	2012			2013		
	Value	Rate of increase	Specific gravity	Value	Growth rate	Specific gravity
Total volume	1597	6.8	-	1730	8.4	-
South Korea	178	1.7		194	8.9	
Australia	125	0.3		159	27.4	
Angola	107	75.6		128	20.0	
U.S.A	113	2.7		116	2.5	
Brazil	99	-9.1		105	5.5	
Russia	83	33.3		70	-15.8	
Saudi Arabia	70	48.3		70	-0.7	
Japan	73	-13.4		61	-15.8	
Indonesia	50	2.5		59	17.6	
Oman	11	99.4		45	312.9	

Data: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China Trade Statistics

연구와 인지도 및 활용도 조사, 활용률 분석 및 활용전략, 활용역량과 수출성과간의 관계 등 관계요인들을 조사·분석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남풍우·최준호 (2007)은 한·아세안 FTA의 경우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 및 확인절차가 복잡하여 기업들이 이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안재진 (2008)은 FTA가 확대될수록 FTA를 활용함에 있어서 원산지규정의 복잡성과 행정비용이 증대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산지정보 관리를 위한 생산공장보유업체 지정제도, 수출자인증제도의 적용을 확대하고 원산지정보관리 전담기관을 설립 및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정인교 (2010)는 한·ASEAN FTA의 수출·입 실적을 중심으로 FTA 활용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기업들은 FTA를 활용함에 있어 많은 정보부족을 호소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원산지 증빙자료 보관의무에 대한 부담, FTA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 육성, 기업의 원가정보 제공 기피, 산업별 협회의 기능과 역할 취약, 원산지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가공하여 제공하는 전문가 부족이 FTA 활용의 제약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김한성 등 (2010)은 무역업체의 FTA활용에 대한 관심도는 최근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수준이며 업체의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특히 교역 상대국의 수입 관세율 확인 및 통관절차 정보 확보의 어려움을 FTA 활용의 장애요인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태영 등 (2011)은 FTA 활용과 관련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장애요인으로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우려, 원산지정보 공유 유인 미흡, 원산지관리시스템 미비, 원산지관리 절담인력 부족, 원산지정보 공유지원조직 미비 등을 제시하였다. 장

기영 (2012)은 한·EU FTA 협정 내용 분석을 바탕으로 FTA를 활용한 국내기업의 외국 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였다.

김한성 등 (2008)은 원산지규정과 FTA 활용률간의 관계를 분석한 후 원산지규정 활용전략을 제시하였다. 김한성 (2009)은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ASEAN 등 기 발효된 4개의 FTA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FTA 특혜관세의 활용률을 통해 분석하고, 각 협정간의 활용률 차이와 원인을 연구하였다. 조미진·안경애 (2011)는 국내기업의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를 조사하고 FTA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산지제도 개선과 원산지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제안하였다. 나도성·윤영호 (2011)은 기업의 FTA 원산지 활용역량이 수출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혔으며, 기업의 FTA 원산지 활용역량으로 원산지규정의 이해도, 원산지판정 능력수준, 원산지절차 이해도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중소기업 활용 차원의 연구는 활용상의 문제점, 활용현황 및 영향, 활용극대화를 위한 지원 및 개선방안, 경쟁력 강화방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송희영·이영주 (2008)는 한·미 FTA의 영향을 중소기업 관점에서 조명함으로써 한·미 FTA의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분석의 틀을 제시하였다. 김무한 (2010)은 FTA별 원산지결정기준의 차이는 대기업 관련 산업보다는 중소기업 관련 산업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였다. 그 이유로 원산지규정의 복잡성과 엄격성, 복잡하고 비용지향적인 행정절차를 들고 있다.

이도형 (2013)은 수출입 통계분석을 통해 도출한 추정적 사실을 근거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중소기업 관점에서 한·EU FTA 활용현황 및 그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기업과 정부에게 대응과제를 제시하였다. 박철구 (2013)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높이기 위해 원산지정보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실증분석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FTA 활용 극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원산지정보의 유통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홍유수·이준호 (2008)은 한·EU FTA 협정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분도 (2009)는 중소기업의 시각에서 한-EU FTA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고 FTA를 통한 수출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최재섭 (2012)은 한-미 FTA가 한국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2차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중소기업 측면의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III.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1.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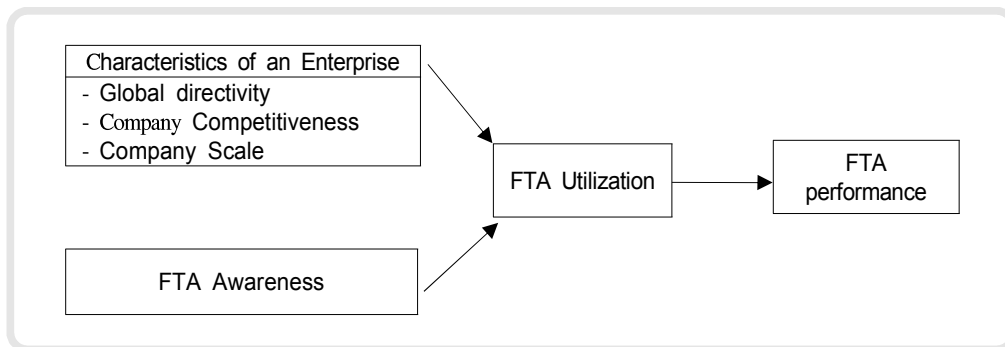
본 실증분석의 목적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산동성 수출입 기업들을 대상으로 FTA 인지도와 FTA 활용도를 파악하고, FTA 활용이 FTA 발효에 따른 성과에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

또한 더 나아가 향후 한중 FTA 발효에 대비하여 한국과 중국의 FTA가 각 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인식이 양 국가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대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김태인·이준건 (2014)의 논문의 모형을 참고하고자 한다.

내수시장에 의존하고 있어 글로벌 지향성이 떨어지는 기업에게는 오히려 시장개방에 따른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기업의 글로벌 지향성이 FTA 활용도 및 FTA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지향성과 FTA의 활용도간에 정(+)의 관계를 가지는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일반적으로 FTA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에 달려 있다. 경쟁력이 없는 기업이 FTA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과 FTA의 활용도간에 정(+)의 관계를 나타내도록 모형을 설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기업의 FTA 활용에 대한 요인을 검토해보면 FTA 활용과 FTA 인지도(FTA 협정관세, 원산지결정기준 인지도, 원산지증명서 인지도, 제품의 HS번호 인지도와 기업의 FTA 인지도)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점에 따라서 FTA 활용에 있어서

Fig. 1. Model



FTA 에 대한 인지도가 긍정적인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설정하였다.

최근 정부는 발효된 FTA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부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FTA 활용도와 FTA 발효성과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FTA 활용이 FTA 발효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고 있다는 아래와 같은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2. 연구가설 설정

송희영·이영주(2008)는 기업의 경쟁력, 해당 시장에 대한 거래경험, 글로벌 지향성 등의 중소기업의 특성요인이 FTA 활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하고, 한-미 FTA가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였다. 김정권 (2003) 및 정구현 (1987)은 기업의 규모, 수출경험, 수출비중 등의 기업특성이 수출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도형 (2013)은 글로벌 지향성, EU시장의 경험의 기업의 내재적 특성요인이 한·EU FTA 활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특성요인과 FTA 활용도 사이의 관계를 검정할 수 있는 가설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1 기업의 특성은 기업의 FTA 활용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1-1 글로벌 지향성은 기업의 FTA 활용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1-2 기업의 경쟁력은 기업의 FTA 활용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1-3 기업의 규모는 기업의 FTA 활용

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박철구·최장우 (2013)는 기업의 원산지 관리역량을 요인별로 검토한 후, 기업의 FT 인지도, 원산지관리의 인지도, 원산지증명의 인지도, 원산지절차 인지도 모두 FTA 활용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즉 기업의 원산지 관리역량이 낮을 경우 FTA 활용에 장애요인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FTA 인지도와 FTA 활용도 사이의 관계를 검정할 수 있는 가설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2 기업의 FTA 인지도는 FTA 활용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정인교 (2010)는 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를 통해 FTA 발효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중소기업청, 한국무역협회 등 FTA 관련부처 및 기관에서는 기 체결된 FTA에 대한 기업의 활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정책과 지원제도를 쏟아내면서 한국 FTA 정책의 성공여부가 기업의 FTA 활용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FTA 활용도와 FTA 발효에 따른 성과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과 실무현상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FTA 활용도와 FTA 발효에 따른 성과 사이에 상관관계를 검정할 수 있는 가설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3 기업의 FTA 활용도는 FTA 발효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연구모형 및 가설은 크게 기업의 특성 및 FTA 인지도와 FTA 활용도 사이의 관계분석, FTA 활용도와 FTA 발효에 따른 성과 사이의 관계분석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관계분석 및 가설검정을 위해 기업의 특성과

FTA 인지도를 독립변수로 구성하였고, 각 독립변수의 영향에 따른 기업의 FTA 활용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두 번째 관계분석 및 가설검정을 위해 FTA 활용도를 독립변수로, FTA 발효에 따른 성과를 종속변수로 각각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들 변수에 대해 연구목적에 부합되도록 (Table 5)

Table 5. Definitions and Measures of Variables

Variable	List of measurements	Measurement method
Enterprise characteristics	scale · number of employees	Five-point scale
	competitive · 3 years average annual sales	Five-point scale
	Global · Annual sales export ratio	Five-point scale
Awareness of an F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 code of an exporting product · HS codes of raw materials of an exporting product · partner country tariff rate on an exporting product · home country tariff rate on importing raw materials · each product PSR · each FTA's PSR fulfillment awareness · method of issuing C/O according to the convention · documents for issuing C/O · duty of keeping the document of C/O for 5 years from the date of issue · Penalty in case of violation the rules of origin · Posteriori test in partner country · business model of an FTA 	Five-point scale
Practical usage of an F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paration for the enforcement of an FTA · issuing certificate of origin according to FTA standards in case of exporting · application for favor custom tariffs · confirmation of certification of origin receiving Preparation of BOM according to the criteria of country of origin · The appointment of related issue right holders of the Place of Origin certification · Acceptance of being an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e certificate of origin from Customhouse · storage of original documents · management and recording of place of origin documents · construction of a business model of an FTA 	Five-point scale
Outcome of the enforcement of an F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lieve in tariff rates · Export growth effect due to the abolition · Export growth effect due to ease in non-tariff barriers to trade · Export growth effect due to higher level of awareness (of a product) · reduction of production cost and higher rate of return · rise in opportunities of industrial cooperation · overall evaluation after the enforcement of an FTA · medium-and long-term effect of an FTA and henceforward overall evaluation 	Five-point scale

과 같이 조작적 정의를 내리기로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지는 기업의 일반적 사항, FTA의 인지도, FTA 활용 현황 및 FTA 발효에 따른 성과 등 크게 4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설문조사 기간, 대상, 방법, 수거된 최종 설문지 개수는 제2장의 중국 FTA 활용현황 설문조사와 동일하다. 따라서 최종 114개 표본을 중심으로 자료 정리, 통계처리 및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도구로는 SPSS 18.0를 사용하였으며, 각 가설의 검정에는 분산분석, 다중회귀분석, T-test 등의 방법을 통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IV. 분석결과

1. 타당성, 신뢰성 및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변수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정확히 나타내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가 개념적 타당성을 가지는가를 검정하기 위해 요인 분석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은 다변량 자료의 분석방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석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분석의 대상이 되는 변수의 수가 많은 경우 이들 사이의 상호 관련성을 이용하여 변수 속에 내재된 요인이라고 부르는 소수의 공통적인 새로운 변수를 찾아내어 이들이 지니고 있는 특성으로 전체 자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통계적 분석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측정 변수들이 특정 요인으로 구별되는지 그 타당성을 검정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측정변수들의 선정이 적합한지를 나타내는 KMO(Kaiser-Meyer-Olkin)

측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Test of Sphericity)을 사용하였다. KMO의 경우 그 값이 0.8 이상이면 상당히 좋은 것으로, 0.6 이상이면 적당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신뢰성 검정이란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어떤 측정도구(설문)를 반복하여 적용하였을 때, 그때마다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지의 여부에 관한 문제로 연구자가 사용한 측정도구가 알아내려고 하는 개념을 얼마나 믿을만하게 측정하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에는 재측정법, 항목이분할법, 그리고 내적 일치도법 등이 있다.¹⁾

본 연구에서는 내적일관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α)계수를 이용하는데 이 방법을 이용하여 해당 척도를 구성하고 있는 각 항목들의 신뢰성까지 평가할 수 있다. 크론바하 알파계수는 0~1 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높을수록 바람직하나 그에 대한 기준은 학자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몇 점 이상의 기준은 없다. 대개 0.8~0.9 이상의 값이라면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고 0.7 이상이면 바람직하다고 보고, 0.6 이상이면 수용할 정도 수준이고, 0.6 이하이면 내적 일관성을 결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0.6 이상이면 내적 일관성이 높다는 것으로 판단하여 신뢰계수 값의 범위를 사용하였다.

2. 가설검정 결과

1) 기업의 특성과 FTA 활용도

기업의 특성과 FTA 활용도의 관계를 분석하기에 앞서 FTA 활용도 측정 변수들을 특정 요인으로 구별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

1) 서의훈, SPSS 통계분석, 자유아카데미, 2005, pp. 210-222.

Table 6. Validity and Reliability Analysis (FTA Practical Usage)

Classification		Value			
Standard and direct Kaiser-Meyer-Olkin scale		.833			
Bartlett's test	Approximate Chi-Square	545.489			
	Significance	.000			
Factor	Measuring Scales	Utilization1	Utilization2	Reliability	
FTA Utilization	c3: When importing raw materials FTA preferential tariff ratio is applied.	.890		.692	
	c5: Confirmation letter of the place of origin of the raw material is received.	.747			
	c6: Specification letters are written for the individual place of origin decision standard evaluation	.682			
	c2: When exporting, the FTA place of origin certificate is issued.	.638		.889	
	c7: The eligible person to the signing and issuing of place of origin certificate is appointed	.820			
	c8: The document of place of origin certification and export is certified from the custom.	.786			
	c9: The related documents are actually kept.	.894			
	c10: The signed document certification of place of origin is recorded and managed.	.897			
	c11: The FTA utilization business model is established.	.617			
	Eigen Value		4.613		1.403
	Dispersion (%)		51.254		15.587

석을 실시하고 해당 문항의 신뢰도 검정을 실시하였다.

FTA 활용도에 관한 변수별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는 <Table 6>와 같다. 9개의 측정 항목들에 대한 KMO값은 0.833으로 나타나 변수 선정에 문제가 없었으며, Bartlett의 검정 경우도 근사 카이제곱이 545.489로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p < 0.001$) 것으로 나타났다.

주성분 분석결과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활용도1 (수출활용)과 활용도2 (수입활용)의 설명력은 각각 51.254%와 15.587%으로 총 66.842%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또한 해당요인에 적재된 각 변수들의 요인적재값(Factor Loading)도 대부분

0.6 이상으로 나타나 타당성 역시 만족할 만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기업특성요인의 신뢰성(Cronbach's α)분석 결과 활용도1 (수출활용)은 0.889, 활용도2 (수입활용)은 0.692으로 나타나 실증분석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글로벌 지향성

가설1-1은 글로벌 지향성이 기업의 FTA 활용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설정한 각 변수들을 이용하여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Table 7>의 분석결과를 보면 응답기업의 글로벌 지향성에 따른 FTA 활용도1 (수

Table 7. Global Directivity and Practical Usage of an FTA Analysis

Global directivity (Export ratio)		Mean	Std. Deviation	F Value	Sig.
FTA Utilization1	0~20%	2.118	.948	7.667	.000
	21~40%	2.750	1.373		
	41~60%	3.417	.821		
	61~80%	3.517	1.004		
	81~100%	2.479	1.124		
FTA Utilization2	0~20%	2.132	1.164	3.018	.110
	21~40%	2.467	.932		
	41~60%	3.133	1.028		
	61~80%	3.067	1.225		
	81~100%	2.354	1.050		

출활용)은 유의수준 ($p < 0.01$)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으며, 분석결과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61~80%인 수출입 기업의 FTA 수출 활용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수출비중이 절반이 넘어서는 지점부터 수출비중을 더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FTA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FTA 활용도2 (수입활용)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산동성 기업이 대부분 원재료 구입할 때 직접 해외 수입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구매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기존 선행연구(송희영·이영주, 2008)와 달리 중국 산동성의 경우 내수시장 위주 원자재 구입에 따른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업군별로 구분하여 글로벌 지향성에 따른 FTA 활용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Scheffe 검정을 이용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해 보았다. <Table 8>의 검정결과 수출 비중 41~60% 기업군 및 61~80% 기업군의 경우 수출비중 20% 이하인 기업군, 수출비중 21~40%의 기업군 및 81~100%인 기업군과 FTA 활용도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2) 기업의 경쟁력

가설1-2는 기업의 경쟁력이 기업의 FTA 활용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것이다. <Table 9>의 분석결과 기업의 경쟁력(매출액)에 따른 FTA 활용도1 (수출활용)과 FTA 활용도2 (수입 활용)에 대해서 모두 유의수준 ($p <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1,000만~5,000만불 기업이 다른 집단군의 기업에 비해 가장 높은 FTA 활용도1

Table 8. Posthoc Test Results of Global Directory (FTA Practical Usage)

Global directory	N	Sub group to $\alpha = 0.05$	
		1	2
0~20%	48	2.118	
81~100%	16	2.479	2.479
21~40%	20	2.750	2.750
41~60%	20		3.417
61~80%	10		3.517
Utilization Rate		.522	.138

Table 9. Enterprise Competitiveness and Practical Usage of an FTA Analysis

Business Productivity(Sales, turn over)		Mean	Standard deviation	F Value	Sig.
FTA Utilizaiton1	Under 100,000 USD	1.792	1.168	11.088	.000
	100,000~1 million USD	1.824	.7752		
	1 million~10 million USD	2.772	1.106		
	10 million USD~50 million USD	3.722	.863		
	Over 50 mllion USD	2.000	.788		
FTA Utilizaiton2	Under 100,000 USD	1.417	.479	5.845	.000
	100,000~1 million USD	2.211	1.084		
	1 million~10 million USD	2.926	1.175		
	10 million USD~50 million USD	2.917	1.031		
	Over 50 mllion USD	3.389	.228		

(수출활용)을 나타냈으며, 매출액이 5,000만불 이상 기업이 다른 집단군의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FTA 수입활용을 나타냈다.

기업경쟁력이 다른 기업군간의 FTA 활용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동일한 방법으로 Scheffe검정을 이용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Table 10>의 검정결과 매출액 10만불 이하 기업군의 경우 100만~1,000만불 기업군 및 매출액 1,000만~5,000만불의 기업군과에 FTA 활용도1(수출활용)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출액 10만불 이하

기업군들의 경우 매출액 5,000만불 이상의 기업군과에 FTA 활용도2 (수입활용) 큰 차이가 나타났다.

(3) 기업의 규모

가설1-3은 기업의 규모가 기업의 FTA 활용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것이다. <Table 11>의 분석결과 기업의 규모에 따른 FTA 활용도1 (수출활용)은 통계적인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FTA 활용도2 (수입활용)은 유의수준 ($p < 0.001$)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이 나

Table 10. Posthoc Test Results of Enterprise Competitiveness (Practical Usage of an FTA)

Company Competitiveness		N	Sub group of $\alpha=0.05$	
			1	2
FTA Utilizaiton1	Under 100,000 USD	8	1.792	
	100,000~1 million USD	34	1.824	
	1 million~10 million USD	6	2.000	
	10 million USD~50 million USD	54	2.772	2.772
	Over 50 mllion USD	12		3.722
	Significant probability		.218	.246
FTA Utilization2	Under 100,000 USD	8	1.417	
	100,000~1 million USD	34	2.211	2.211
	1 million~10 million USD	12		2.917
	10 million USD~50 million USD	54		2.926
	Over 50 mllion USD	6		3.389
	Significant probability		.522	.138

Table 11. Variance Analysis of the Scale of an Enterprise (Practical Usage of an FTA)

Company Scale (Number of employees)		Mean	Standard deviation	F	Sig.
FTA Utilization1	Under 10	2.194	1.220	2.92	.107
	10~50	2.480	1.186		
	50~100	2.958	1.109		
	100~500	3.194	.842		
FTA Utilization2	Under 10	1.444	.434	6.721	.000
	10~50	2.418	1.044		
	50~100	3.187	1.237		
	100~500	2.796	1.146		

Table 12. Posthoc Test of The Scale of an Enterprise (FTA Utilization)

Company Scale (Number of employees)	N	Sub group of a =0.05	
		1	2
Under 10	12	1.444	
10~50	68	2.418	2.418
100~500	18		2.796
50~100	16		3.187
Sig.		.522	.138

타났다.

기업의 규모가 다른 기업군간의 FTA 활용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상기와 동일한 Scheffe검정을 이용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하였으며, <Table 12> 검정결과 중업원 수 10명 이하 기업군의 경우 100~500명 기업군 및 50~100명의 기업군과에 FTA 활용도2(수입활용)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한편, 상기 분산분석 방법은 집단간의 차

이여부는 설명할 수 있지만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업특성으로 가정한 세 개의 독립변수들이 활용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13>의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FTA 활용도1(수출활용)이 미치는 결과를 보면, 글로벌 지향성의 경우 Beta가 0.183으로 유

Table 13.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Characteristics of an Enterprise and Practical Usage of an FTA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eta	T	Sig.	R Square	F	D-W	Test Result
FTA Utilization 1	Global directivity	.183	2.63	.010	.177	9.080***	2.088	Accepted
	Company competitiveness	.364	2.64	.009				Accepted
	Company Scale	.016	.922	.358				Rejected
FTA Utilization 2	Global Directivity	.128	1.83	.070	.144	7.313*	2.269	Rejected
	Company competitiveness	.278	2.00	.048				Accepted
	Company Scale	.237	1.62	.106				Rejected

*p<0.05, **p<0.01, ***p<0.001

의수준 ($p < 0.05$)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타났으며, 기업의 경쟁력의 경우에도 Beta가 .364으로 유의수준 ($p < 0.01$)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업규모의 경우에는 유의확률이 0.784로 높아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FTA 활용도2 (수입활용)이 미치는 결과를 보면, 기업의 경쟁력의 경우에 Beta가 0.278으로 유의수준 ($p < 0.05$)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글로벌 지향성과 기업의 규모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2) FTA의 인지도와 FTA 활용도

가설2는 FTA 인지도가 기업의 FTA 활용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것이다. 두 번째 가설의 검정을 위해 기업의 FTA 인지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해당 문항의 신뢰도 검정을 실시하였다.

〈Table 14〉은 FTA 인지도요인에 관한 변수별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이다. FTA 인지도요인 분석과 관련 12개의 측정항목에 대한 KMO값은 0.754으로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 선정에 문제가 없으며, Bartlett의 검정 경우에도 근사 카이제곱이 964,926으로 유

Table 14. Validity and Reliability Analysis (FTA Awareness)

Classification		Value			
Standard and direct Kaiser-Meyer-Olkin scale		.754			
Bartlett's test	Approximate Chi-square	964.926			
	Significance	.000			
Factors	Measurement Scales	Awareness1 Aftermath Management	Awareness2 Procedure of issuance	Awareness3 FTA Tax rate	Reliability a Value
FTA Aware- ness	b1: The HS code of the exported goods.			.709	.752
	b2: The HS code of the raw material components of the exported goods.			.773	
	b3: The tariff of the exporting target country (FTA agreement tax rate)			.825	
	b4: The import tariff of Korea(FTA agreement tax rate)			.662	
	b5: FTA Product Specific Rule(PSR)		.868		.882
	b6: The individual place of origin decision standard is met.		.880		
	b7:FTA C/O Issuing method		.828		
	b8:C/O Issuing application documents		.642		
	b9:C/O The duty of keeping the documents for 5 years after issuing.	.883			
	b10: Punishment when the regulation of place of origin is violated.	.815			
	b11: Posteriori tests of the opponent country's FTA	.896			
	b12:FTA (Utilization)Business Model	.873			
Eigen Value		5.030	2.392	1.374	
Dispersion(%)		41.913	19.937	11.446	

의수준 ($p < 0.001$)에서 변수들 간 상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성분 분석결과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인지도1(사후관리)의 설명력은 41.916%, 인지도2(발급절차)의 경우 19.937%, 인지도3(FTA 양허세율)의 경우 11.446% 보여 총 73.297%의 설명력을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해당요인에 적재된 각 변수들의 요인 적재값도 대부분 0.6 이상으로 나타나 타당성 역시 만족할 만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특성요인의 신뢰성분석 결과 인지도1은 0.918, 인지도2는 0.882, 인지도3은 0.752로 실증분석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인분석으로 추출한 3개의 FTA인지도를 요인점수 계수행렬로 변환하고, 이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FTA인지도가 FTA활용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Table 15>의

상관관계분석 결과, FTA의 인지도1 (사후관리)과 인지도2 (C/O발급절차)와 인지도3 (HS 및 수입관세율)은 FTA 활용도1 (수출 활용)과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였고, 인지도3 (HS 및 수입관세율)과 FTA 활용도2 (수입활용)와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수출활용의 경우 인지도1,2,3의 모든 항목들이 관련이 있고, 수입활용의 경우는 인지도2(C/O발급절차)와 인지도3 (수입관세율)의 항목들이 직접관련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Table 16>의 FTA 인지도와 FTA 활용도 회귀분석 결과, FTA인지도 2와 3의 Beta 값이 각 0.372, 0.543로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TA 활용도2에 대한 FTA 인지도 3의 결과를 보면, Beta 값이 0.561로 나타나 5%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Table 15.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TA Awareness and Practical Usage

	Mean	Standard deviation	1	2	3	4	5
1.Awareness1	2.732	1.170	1				
2.Awareness2	3.382	1.081	.462**	1			
3.Awareness3	3.443	.929	.175	.423**	1		
4.Utilization1	2.630	1.161	.233*	.529**	.580**	1	
5.Utilization2	2.479	1.146	.170	.316**	.506**	.484**	1

* P < 0.05 **P < 0.01

Table 16.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TA Awareness and Practical Usag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ate	T	Significance	R Square	F	D-W	Test result
Utilizaiton 1	Awareness1	.004	.044	.965	.435	28.196***	1.682	Rejected
	Awareness2	.372	3.947	.000				Accepted
	Awareness3	.543	5.490	.000				Accepted
Utilization 2	Awareness1	.041	.457	.649	.270	13.590***	1.994	Rejected
	Awareness2	.111	1.047	.297				Rejected
	Awareness3	.561	5.059	.000				Accepted

* P < 0.05, **P < 0.01, ***P < 0.001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출기업의 FTA 활용도는 FTA C/O 발급절차와 HS 및 협정세율의 인지도 수준이 높을수록 활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의 경우는 수입원자재의 HS 및 협정세율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기업의 FTA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FTA 활용도와 FTA 발효에 따른 영향

가설3은 FTA 활용도는 FTA 발효에 따른 영향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것이다. 세 번째 가설의 검정을 위해 기업의 FTA 인지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해당 문항의 신뢰도 검정을 실시하였다.

FTA 발효영향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과 관련 7개의 측정항목에 대한 KMO값 0.842, 신뢰도 a 값 0.892, 유의확률 $p < 0.001$, Bartlett의 검정 등에 있어서 변수 선

정에 문제가 없고,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등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성분 분석결과 1개의 요인이 추출되어 FTA 발효 성과로 명명할 수 있었다.

기업의 FTA 활용도에 따라 FTA 발효의 영향에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FTA 활용도에 대한 평가점수가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으로 구분하고, 이들 기업군 사이에 FTA 발효에 따른 영향의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FTA 활용도에 따른 FTA 발효의 영향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FTA 활용도가 FTA 발효에 따른 영향에 미치는 결과를 파악하기 위해 FTA 활용도 평가점수가 보통(=3)이상인 집단과 보통 이하인 집단으로 재분류하고 T-test를 통해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Table 18〉의 분석결과, 7개 항목중 인지도 향상에 따른 수출증가 효과, 관세율 폐지에 따른 수출증가 효과 그리고 비관세장벽 완화에 따른 수출증가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

Table 17. Validity and Reliability Analysis (FTA Performance)

Classification		Value
Standard and direct Kaiser-Meyer-Olkin scale		.842
Bartlett's test	Approximate Chi-Square	525.113
	Significance	.000
Factors	Measurement scales	Reliability a value
FTA Utilization	d1: The export increase effect through the FTA tariff abolition.	.852
	d2: The export increase effect through the easement of a non-tariff barrier	.898
	d3: The export increase effect through awareness improvement.	.821
	d3: The effect of production cost cut and sales profit ratio increase.	.754
	d5: The industrial cooperation chance enhanc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881
	d6: The overall evaluation of the present after the FTA had taken effect.	.538
	d7: The medium or longer term effect of FTA and overall prospect	.697
Eigen Value		4.326
Dispersion(%)		61.798

Table 18. The T-test Result between FTA Utilization and FTA Performance (1)

Classification		Mean	Standard Deviation	t value	Average difference
The export increase effect through the FTA tariff abolition.	Company with low utilization	3.03	.740	-2.73**	-.45
	Company with high utilization	3.49	1.046		
The export increase effect through the easement of a non-tariff barrier	Company with low utilization	3.00	.672	-2.88*	-.54
	Company with high utilization	3.43	.922		
The export increase effect through awareness improvement.	Company with low utilization	2.75	.803	-4.44***	-1.03
	Company with high utilization	3.49	.987		
The effect of production cost cut and sales profit ratio increase.	Company with low utilization	2.89	.882	-1.24	-.38
	Company with high utilization	3.10	.900		
The industrial cooperation chance enhanc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Company with low utilization	2.86	.780	-2.13	-.49
	Company with high utilization	3.20	.917		
The overall evaluation of the present after the FTA had taken effect.	Company with low utilization	3.05	.607	2.44	.17
	Company with high utilization	2.71	.879		
The medium or longer term effect of FTA and overall prospect	Company with low utilization	3.59	.835	1.16	-.03
	Company with high utilization	3.37	1.131		

* P < 0.05, **P < 0.01, ***P < 0.001

Table 19. The T-test Result between FTA Utilization and FTA Performance (2)

Classification		Mean	Standard Deviation	t value	Average difference
FTA Effect	Company with low utilization	21.12	4.22	-2.20*	-3.02
	Company with high utilization	24.14	5.11		

* P < 0.05, **P < 0.01, ***P < 0.001

의한 차이를 보였다.

종합적으로 FTA 발효에 따른 영향 평가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T-test를 통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Table 19>의 분석결과 FTA 발효성과와 FTA 활용이 유의수준

($p < 0.05$)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 산동성에 소재하는 FTA 활용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 FTA 발효성과에 유의한 차이를 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실증분석 요약

가설의 검증결과를 요약해보면, 기업의 특성의 경우 분산분석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 지향성, 기업 경쟁력 2개 항목에서 집단 간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글로벌 지향성과 기업 경쟁력 2개 항목은 FTA의 활용도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의 규모 항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미를 가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기업의 특성은 일반적으로 FTA 활용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업의 글로벌 지향성과 기업 경쟁력이 높은 기업군일수록 FTA 활용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FTA 수출활용도에 FTA 인지도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 총 12개 항목에서 수출 HS번호 C/O 발급절차 인지도(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도, 제품에 대한 FTA 원산지결정기준,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와 FTA 협정세율 인지도(수출제품을 구성하는 원재료에 대한 HS번호, 제품에 대한 수출상대국의 FTA 협정세율, 수출제품에 대한 HS번호, 수입원재료에 대한 본국의

FTA 협정세율) 항목들이 수출에 대한 FTA 활용도와 긍정적인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기업의 FTA 협정세율과 수출 항목의 HS 번호의 인지도가 높을수록, C/O 발급절차 인지도가 높을수록 기업의 수출에 있어서 FTA 활용이 높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FTA 활용도는 FTA 발효의 영향이 없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서 활용된 중국 산동성 지역의 기업들의 경제적인 성과에 FTA 발효는 영향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가설 중 기각된 가설도 비록 유의한 통계적인 결과는 없었으나 상관관계 결과 본 연구에서 채택된 가설항목과 같은 방향인 것을 확인하였다.

V. 결론

최근 FTA 체결이 늘어감에 따라 수출기업들의 FTA 인지도와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 경우, 경제적 효과는 당연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지역과 산업기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강원도는 그 지역적 특색으로

Table 20. Hypothesis Test Summary

Hypothesis 1	The Characteristic of the company will give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company's FTA utilization.	+	Accept
Company Characteristics	Global Directivity	Hypothesis1-1: The company's global directivity will give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company's FTA utilization.	Accepted
	Company Competitiveness	Hypothesis1-2: The company's competitiveness will give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company's FTA utilization.	Accepted
	Company Scale	Hypothesis1-3: The company's scale will give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company's FTA utilization.	Rejected
Hypothesis 2	The awareness of the company will give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FTA utilization.	+	Accepted
Hypothesis 3	The company's FTA utilization will give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FTA effect outcome.	+	Rejected

인하여 제조기반이 매우 여력하며 대기업의 투자가 적고 주로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자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 산동성의 수출입 기업들을 대상으로 FTA 인지도 및 FTA 활용도가 FTA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김태인·이준건 (2014)의 연구에서 개발한 모형을 이용하였다.

중국 산동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FTA 활용현황 및 FTA 활용지원제도 이용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기업의 약 90% 이상이 중소기업이었고, 주요 FTA 수출입 지역은 ASEAN, 싱가포르와 대만으로 나타났다. FTA 인지도는 섬유/의류, 기계과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 FTA 활용도는 자동차 부품과 철강공업에서, FTA 성과는 광석, 철강공업과 기계 산업에서 높게 나타났다.

가설의 검정결과를 요약해보면, 기업의 특성의 경우 분산분석과 회귀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기업의 특성은 FTA 활용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중국 산동성에 위치한 수출기업의 경우 경쟁력(연매출액)과 글로벌 지향성(수출비중)이 높을수록 FTA 활용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FTA 인지도와 FTA 수출활용도 간의 관계의 경우, 인지도 15개 항목 가운데 8개 항목이 FTA 수출활용도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함에 따라 중국 산동성 기업은 수출 HS번호 및 FTA 협정세율 인지도와 C/O 발급절차 인지도가 높을수록 FTA 수출활용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TA 수입 활용도의 경우, 15개 항목 가운데 4개 항목이 FTA 수입활용도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함에 따라 기업의 FTA 협정세율 인지도가 높을수록 수출상품의 HS 인지도가 높을수록 FTA 활용이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

기업의 FTA 활용도는 FTA 발효에 따른 영향(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FTA 발효에 대한 성과에 대한 7개 요인중 종합적인 평가만 통계적인 유의성과 정(+)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같은 FTA의 활용보다 FTA 상대국의 수입기업에게 있어 관세철폐로 인한 금액절감이나 원가절감 같은 FTA 발효의 영향이 가시적인 성과로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FTA 발효국의 수출자 또한 FTA 활용도를 높여 성과를 직접적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향후 단계적 관세인하 품목들의 관세가 상당부분 철폐되고 FTA 원산지관리 시스템이 안정이 전제되어야 함으로 적어도 향후 몇 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김태인·이준건 (2014) 모형의 결과와 비교하여 본 논문에서는 같은 모형의 선행연구 결과와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모형의 타당성을 인정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FTA에 관련 기관들은 산동성 업체들이 FTA 활용을 제고시켜 가시적인 FTA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FTA 활용전략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FTA 활용 극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유통체계 개선방안으로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시스템 구축방안, 대기업과 중소 납품업체간 상생협력 유도 방안, 원산지정보 플랫폼 구축방안, 원산지제도의 간소화, 원산지정보 인증제도 및 민간 컨설팅시장의 육성방안,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강화, 그리고 시장 유통 중간재에 대한 원산지정보 관리 방안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²⁾

2) 박철구(2013), “원산지정보의 유통 촉진방안에 관한 실증연구: 중소기업 FTA 활용촉진 지원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42.

Reference

- Boon-Do Jeong, (2009), "A Study on the Competition Strategies of Korean Exporting SMEs through Analysis of Korea-EU FTA",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 Commerce*, Vol.5, No.2, pp.1-21.
- Cheol-Gu Par, Jang-Woo Choi, (2013), "An Empirical Study on Factors Affecting SMEs' Origin Management Competency and Utilization of FTA", *The Journal of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Vol.14, No.1, pp.73-88.
- Cheol-gu Park, (2013), "An empirical study on the stimulating measures for the circulation of origin information: focused on the SMEs' utilization of FTA", Department of Global Trade Graduate School of Hannam University, Thesis for the Degree of Doctor.
- Do-Hyung Lee, (2013), "An empirical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Korea-EU FTA for SMEs in Korea",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of Konkuk University, Thesis for the Degree of Doctor.
- Do-sung Na, Young-ho Yoon, (2011), "An Empirical Study of the Influencing Factors on Export Performance Under the Free Trade Agreements", *Korea trade review*, Vol.36, No.3, pp.23-51.
- Eui-Hun Seo, 「IBM SPSS Statistics」, FREE A CADEMY, 2005.
- Eun-Jeong, Jang, (2014), "Chinese Tourism Promotion Act and South Korea-China FTA Tourism Service", *Law Journal*, Vol.46, No.-, pp457-486.
- Gi-Young Jang, (2012), "A Study on the Competition Strategies through Analysis of Korea-EU FTA",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Vol.25, No.1, pp.851-871.
- Guan-Xin Qiao, (2014), "(A)study on the FTA negotiation and signing of China", International Trade Sungkyunkwan University.
- Han-Sung Kim, Mee Jin Cho, Jae-Wan Cheong, & Min-sung Kim, (2008), "Korea's FTA Rules of Origin: Review and Future Strategy",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 Hee-Young Song, Young-Joo Lee, (2008), "An empirical analysis on impact of Korea-US FTA on Korean SMEs", *The Journal of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Vol.9, No.2, pp.1-23.
- Hong-Lin Yang, (2014), "A Study on the Agriculture Activation in Sichuan Province Based on Korea-China FTA",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of Chonbuk National University.
- Jae-Gwon Shim, (2013), "An Empirical Study on the Ways of Export

- Increasing for Korean SMVEs through the FTA Application Capability: focused on Korea and ASEAN FTA”, Department of Venture Technology and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Konkuk University. Thesis for the Degree of Doctor.
- Jae-Jin Ahn,(2008), “A Study on the Efficient Operation Plans of Korea’s FTA Origin Information in FTA Era”,*The Social Science Researches*, Vol.34, No.1, pp. 51-80.
- Jae-Seob Choi, (2012), “Policy Suggestions for Korea’s Small and Medium Businesses under Korea-US FTA”, *The Journal of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Vol.13, No.1, pp. 129-144.
- Jeong-Gwon Kim, (2003),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Export Marketing Strategy and Performance of Korean Small and Medium Firms”,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Studies*, Vol.8, No.2.
- Jung-ok Park, (2006), “China’s FTA policy : performances and future challenges”,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sis for the Degree of Master.
- Jung-seok Choi, (2014), “Research of perspective on Korea-China’s FTA”, *The Journal of Chinese studeies*, Vol.68, No.-, pp. 311-334.
- Jun-Jian Li, (2013), “An empirical study on the FTA Business Model for Comparative Advantageous Industries of Gangwon-do in Korea”,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Graduate School of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esis for the Degree of Doctor.
- Mee-jin Cho, Kyung-Ae Ahn, (2011), “The Rules of Origin in Korean FTAs and the Analysis on the Domestic Firms’ Use of FTAs”, *Korea trade review*, Vol.36, No.3, pp.83-105.
- Moo-Han Kim, (2010), “A Study on the Application Strategies according to the FTA Rules of Origin”,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of Konkuk University.
- Phung-Woo Nam, Jun-Ho Choi, (2007), “A Study on the Origin decision standard and Certificate of Origin Preparation of Korea.ASEAN FTA”,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ol.9, No.2, pp.183-203.
- Soo-Suk Sohn, (2014), “International Trade : A Study on the Economic Effects and Policy Implications of Korea-China FTA in Korea”,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IASR)*, Vol.18, No.1, pp.381-405.
- Sung-Ho Park, (2014), “A Study on the

Chinese Rules of Origin”, *BUSINESS MANAGEMENT REVIEW*, Vol.47, No.1, pp.87-112.

Tae-In Kim, Jun-Jian Li, (2014, June), “An Empirical Study on the FTA Performance of FTA Awareness and Applicability”,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ol.16, No.3.

Young-Ho Youn, Do-Sung Na, (2013), “An Empirical Study on the Relations Between Capabilities of Utilizing FTAs and Export Performance: Focused on Resource-based View”, *Korea trade review*, Vol.38, No.2, pp.295-319.

Yuan Gao, (2014), “(A)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Chinese rules of origin under FTA”,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of Chonbuk National University.

Yu-Han Zhang, (2012), “The change of China Trade Policy and Free Trade Agreement”,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of Kwandong University, Thesis for the Degree of Master.

Yu-soo Hong, Sun-Yun Kwon, & Jun-ho Lee, (2008), “Major FTAs of Korea and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SMEs”, *Korea Small Business Institute(KSBI)*.

World Trade Organization <http://www.wto.org>

China FTA Portal <http://www.fta>

mofcom.gov.cn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FTA Portal <http://www.fta.kia.net>